



전교생이 5명 전교생이 5명뿐인 강진읍 서산리의 북초등학교. 지난달 14일 3학년과 4학년이 영어과목 복식수업을 하기 위해 한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강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0대 중반이면 총각 소리 들어요”

**인구절벽 ‘지방소멸’
성장동력이 꺼져간다**

<1> 강진 남호마을 르포

광주·전남은 갈수록 출생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에 서 있다. 전남은 지난해 이미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했고, 전남이라는 지 지기반을 상실한 광주의 인구는 정체 또는 감소 상태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최근 일본에서 제기된 ‘지방소멸’이 전남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광주 일보는 광주·전남의 인구 절벽 문제를 심층 보도한다. <관련기사 3면>

“이 마을에서 갓난 아기 울음소리 들어 본지가 몇 년 된 것 같네요. 예전엔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들렸다고 하던데...”
지난달 14일 오후 2시 강진군 대구면 남호마을 회관에서 만난 주민 박희정(여·38) 씨는 마을 주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마을에선 탄생의 기쁨보다 사망을 알리는 비보가 더 잦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선 지난 2014년 초 아기가 태어난 이후 갓난 아이 울음소리가 멈췄다. 남호마을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옆 마을인 항동·난산

주민 114명에 가입여성 4명
갓난아기 울음소리 들은지 오래
초등학교는 통폐합 대상으로

마을은 지난 1996년·1998년 이후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린 적이 없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 마을 주민 수는 모두 114명(59세대)이다. 이중 만 19세~39세 미만의 가입 여성 수는 4명(3.51%)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실은 이 마을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각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다.
강진군 한 공무원은 “내 나이가 올해 50대 중반인데, 우리 마을에서 나이가 제일 적어 총각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강진군 민원실에선 인구 통계담당 직원이 출생·사망 추이를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강진은 전국 최초의 귀농·귀촌의 원조다.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총 2386명의 외부 인구가 유입됐다. 또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셋째 자녀까지 120만~720만원까지 각각 분할지급하고 있다.
전체 인구 수와 출생아 수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강진 전체인구는 4만79명(2013년)→3만986명(2014년)→3만875명(2015년)으로 줄었다. 신생아 수도 363명→349명→315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강진군의 인구절벽 현상은 다른 통계에

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기준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137명(신생아 315명, 사망자 452명) 적었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90명·124명 적었다. 인구절벽 현상의 단면인 ‘데드크로스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 강진북초교는 지난 2년간 신입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 지역은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군내 14개 초교 중 10개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됐다. 강진북초교는 지난 2012년 학생 수가 23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이날 현재 학생 수는 5명이다. 현재 이 학교는 학 학년당 정원이 7명을 채우지 못해 3·4학년 3명, 5·6학년 2명이 각각 한 반에서 복식수업을 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선 초·중·고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수보다 경로당 또는 노인대학에 다니는 어르신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기행 강진북초교장은 “현재 수업방식은 주제토론·토의 방식인데, 학생 수가 2~3명에 불과해 토론 수업을 거의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남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전남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9만4792명으로 전체 도민 190만4449명의 20.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광주 하남산단 내 ‘세방산업’ 1급 발암물질 배출 전국 1위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간암·폐암 일으키는 물질 TCE
지난해 294t...전국 배출량 30%
6년 연속 전국 1위...3위 업체 5배
광주시 무대책에 인근 주민 피해

■ 하남산단 세방산업 위치도



대단위 주거지역과 인접한 광주 하남산단 내 ‘세방산업’에서 1급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출량이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세방산업이 한해 배출하는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량은 전국 배출량의 30%에 달하지만 정부나 광주시는 배출허용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들이 유독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돼 왔다.
12일 환경부와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의 ‘2014년 화학물질배출

량 조사결과’ 하남산단에 있는 세방산업이 2014년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294t을 대기 중으로 배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4년 기준 두 번째로 많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 트리스(130t)의 2배 이상이며, 엘지화학여수공장이 배출한 50t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광주지역 다른 9개 사업장에서 배출한 총량(48kg)의 576배에 달한다.
세방산업의 TCE 배출량은 지난 2009년 74t, 2010년 201t, 2011년 310t, 2012

년 439t, 2013년 250t 등으로 매년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위를 차지했다. 배터리를 제조하는 세방산업은 TCE를 배터리용 격리판 세척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에야 실태 파악에 나선 광주시는 세방산업이 사용한 액화상태의 TCE가 추출과 배터리용 격리판 세척, 건조과정에서 기화되면서 최종적으로 대기배출방지시설을 통해 대기 중에 퍼진 것으로 파악 중이다. 또 이 과정에서 출입구 등을 통해서도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TCE는 간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성물질로 흡입했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은 “화학산단도 아닌 일반산단에서 매일 1t에 가까운 1급 발암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졌는데,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인근 노동자와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드, 경북 성주 배치 사실상 결정

한미 당국, 다음 주 발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성산리 일대를 사실상 결정하고 마지막 단계의 세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2·4면>

한미 국방 당국은 공동실무단이 성주를 최적 부지로 평가한 내용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양국 군 최고 수뇌부에 보고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 주 배치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미가 군사적 효용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 결과,

공군 방공포대가 있는 경북 성주지역을 최적화지로 결론을 내리고 양국 군 당국의 행정적인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행정적인 승인 절차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한 지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소식통이 전했다.
성산포대에는 병력 170여명과 대공유도무기인 호크가 배치돼 있다. 호크는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어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中, 남중국해 영유권 법적 근거 없다”

중재재판소, 필리핀 손 들어줘
중국 강력 반발에 긴장 고조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은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함에 따라 남중

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중국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미국은 강력한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dpa,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억울해” 줄짓는 살인사건 재심 ▶7면

문화시민-성남 아트센터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시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시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